

홍역 예방수칙 및 의심 시 주의사항 당부

□ 홍역 예방 및 의심 시 주의사항

○ 홍역의 특징

- ▶ 홍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: 고열과 함께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, 기침, 콧물, 결막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
- ▶ 전염성: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90% 이상이 감염됩니다.
- ▶ 감염경로: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.
- ▶ 전염기간: 환자에서 피부 발진이 발생하기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홍역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합니다.
- ▶ 잠복기: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은 7-21일(평균 10-12일)입니다.
- ▶ 예방접종: 홍역은 MMR(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)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.



○ 홍역 의심 시 주의사항

- ▶ 홍역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 등)이 아닌 자가용 이용을 권고합니다.
- ▶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시 홍역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고, 병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환자와 접촉이 없는 별도공간에서 대기한 후 진료를 합니다.

○ 국외여행 전후 확인사항

- ▶ 여행 전 홍역(MMR)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, 접종력이 없거나 홍역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MMR 2회 접종(최소 4주 간격)을 완료합니다.
- ▶ 귀국 후 홍역(잠복기 7-21일) 의심 증상(발열과 발진 등)이 나타날 경우,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☎1339에 문의합니다.

○ 평소 개인위생 실천



<30초이상 손씻기>



< 올바른 기침예절 >